

즉시 배포  
2019년 7월 15일

언론 담당자:  
캐서린 리차드, [krichards@nobelwomensinitiative.org](mailto:krichards@nobelwomensinitiative.org), 510-418-0972

## Statement Regarding Historic Vote in Congress Supporting an End to the Korean War

### 한반도 종전 지지 미 하원 역사적 결의에 대한 축하 성명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 Korea Peace Now! 국제 캠페인의 핵심 파트너인 우리 네 개 단체는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미 의회의 역사적인 결의를 환영한다. 최근 미 하원은 미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외교적 관계가 대북 정책의 핵심임을 선언하고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담긴 로 카나(Ro Khanna) 의원 공동 발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사무총장은 “이번 표결은 게임 체인저”라면서 “미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끌고 있는 미국이 개입한 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핵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했다.

노벨 위민스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리즈 번스타인(Liz Bernstein) 사무총장도 “이번 표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평화를 향한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고 탄력이 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가속도를 붙여 나가야 할 때” 라고 선언했다.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한반도의 수천만 주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준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면서 “한반도 전쟁 종식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고유경 컨설턴트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뜻을 따라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전쟁을 종식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면서 이것이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향”임을 촉구했다.

###